

가정과 수행평가 도구의 개발과 적용

- 중학교 1학년 의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

심 은 희* (춘천시 소양중학교 기술가정 기간제 교사)
손 원 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목표에 근거한 교수-학습 과정의 연계선상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의생활 단원의 협동학습 지도안을 개발·적용한 후 수업 중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평가하여 앞으로의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수행평가 방법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생활 단원 9차시 분량의 협동학습 지도안과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수업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후, 수업 평가서를 제작·배포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 및 학생들의 반응은 144명의 학습자 중 설문에 성실히 응해준 127명의 수업평가서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후속 학습에 피드백을 하였다. 그 결과

1. 개발한 협동학습 지도안과 수행평가 자료는 생략한다.
2. 협동학습과 수행평가를 통한 학습효과와 반응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선호(82%)하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71%)고 응답하였다. 협동활동에서 서로 공평하게 역할분담(66%)하였으며 대다수의 학생이(96%) 보통 이상으로 기여하였고, 수업 준비를 잘 했다고(84%) 응답하였다. 수행평가 과제는 이해하기 쉬웠으며(59%) 과제 해결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25%), 40분~1시간(31%), 30~40분(30%), 30분 미만(11%) 등으로 중학교 정규수업 45분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정규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55%)으로 나타났다. 과제를 해결을 통해 얻은 이점은 평소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학습태도의 변화(33%),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형성(24%), 문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해결(19%),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평가 부담 축소(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바로 평가하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고(24%), 생각이 자유로우며(23%), 평가라기보다 재미있고(17%), 쉬워(14%), 다른 평가보다 긴장이 덜 된다(11%)는 반응을 보였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동기 및 흥미유발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 구성원 개별 책무성, 사회적 기술의 습득 등의 인간성 발전에 기여하였고, 수행평가는 창조적 능력과 실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가정학의 종합적인 접근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란스러움은 협동학습의 근본 취지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자제를 촉구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행평가 실시로 학생간의 이기주의적 사고를 협동학습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소수의 구성원이 소란을 피우거나 일을 미루는 등으로 협동을 방해해 다른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기술과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시켜 학생들의 사회화와 인간관계 개선하고 후속 학습의 연계나 수업 준비 차원에서 2시간 연속수업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또 수업이 소란스러우면 협동학습의 근본 취지를 잃게 되므로 교실 밖의 활동을 계획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협동학습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